

# ‘세대연대 1번지’ 꿈꾸는 화순 아동·고령친화도시 조성 박차

## 아동 37개·고령 48개 사업 추진

‘세대연대 1번지’로 부상하는 화순군이 아동·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 계획과 고령친화도시 제1기 실행계획(2021~2023)을 수립했다.

‘함께 꿈이 커지는 아동친화도시 화순’을 비전으로 놀이와 여가 등 6개 분야 37개 사업에 387억 원을 투입해 체계적인 아동친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아동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아동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동친화 예산을 분석해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사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아동 권리 인식 확산을 위해 아동권리 교육을 하고,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해 아동 권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추진단 운영을 활성화해 아동의 의견 수렴, 군정 반영, 반영 결과 회신 등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아동 권리 침해 사례 관리, 고충 처리를 위해 읍부즈퍼스 운영도 강화한다.

‘노후가 활기찬 세대연대 1번지 화순’을 비전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는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15개 전략과제, 48개 세부 사업을 선정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군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횡단보도 안전 조명 설치 등으로 노인 중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세대 연대복합센터에 노인회관을 건립한다.

어르신들이 어디든 맘 편하게 이동하도록 맘(mom)편한 100원 택시와 1000원 버스 운행,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큰 활자 정보

안내와 큰 글자 도서 비치 등 정보 이용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거요양 보험료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홀로 사는 어르신 안부 살피기, 홀로 사는 어르신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거동불편 어르신 식사 배달 등 다양한 돌봄 사업도 추진 중이다.

군은 지난 2월 전남 지자체 최초로 3대 친화도시 인증을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2월에는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승인(인증)받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고령자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담양군, 60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 50% 지원

담양군이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국가무료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고가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비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대상포진 발병과 합병증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군민들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비의 50%(4만1000원)를 지불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대상자는 60세 이상으로 담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며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초본을 준비하고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해 의사의 예진 후 접종을 받으면 된다.

또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므로 대상포진 백신 접종일(예정일) 전·후 14일 간격을 두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김순복 담양군 보건소장은 “백신 소진 시까지 접종을 진행한다”며 “대상포진 발병이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많은 주민들의 접종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장성군 사과테마공원, 민간 위탁 ‘순항’

삼서면 드림빌 입주민, 사생대회·체험 행사 등...코로나 불구 흑자

장성군의 대표적인 귀농귀촌 마을인 삼서면 드림빌 주민들이 운영하는 ‘삼서 사과테마공원’이 연 매출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

삼서 사과테마공원은 드림빌 입주민들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드림빌 단지 인근에 조성된 농촌테마공원이다. 약 8만㎡ 규모 부지에 잔디광장, 다목적센터, 영농지원창고, 저온창고 등이 들어섰다. 또 1300여주의 사과나무가 식재된 과수원이 있어 다양한 체험행사(사진) 운영에 활용된다.

삼서면은 장성 사과의 주산지다. 장성 사과는 서리를 맞은 뒤에 수확해 당도와 식감이 탁월하다.

장성군은 테마공원 사과나무가 3~4년의 활착기를 갖고 열매 맺을 준비를 마치고, 지난 2019년 공개모집을 통해 드림공동체영농조합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했다.

드림공동체영농조합은 드림빌 주민과 영농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원들은 매년 1~3월 사과나무를 분양해 사과꽃 나들이 행사, 사생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한다. 또 사과를 이용한 각종 가공제품도 생산한다.

특히 다양하게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이 방문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면서 운영 첫 해부터 4000여명



의 발길이 모이는 등 뚜렷한 성과를 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되었음에도 흑자를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드림빌 주민들의 애정과 열정, 투철한 주인식이 있었기에 오늘날 삼서 사과테마공원의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했다”면서 “농가 소득 창출과 더불어 장성의 6차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지난 13일 빛누리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이 열렸다. (나주시 제공)

## 나주시, 초등생 눈높이 ‘아동권리교육’ 추진

연말까지 24개 학교서...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공감대 확산

나주시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조성 공감대 확산을 위한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실시한다.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빛누리초등학교에서 시작해 연말까지 지역 24개교 초등학생 6학년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불평등 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받는 지역사회를 뜻한다.

이번 교육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중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제8항) 실천을 위한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는 앞서 지난 해 3개 초교, 1개 아동시설과의 시범운영을 통해 올해 전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아동권리교육 정례화를 도모하고 있다.

교육은 아동친화도시의 핵심 주체이자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이 아동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고 권리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문 강사를 학교로 직접 파견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 감수성, 아동의 4대 기본권 등을 아동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놀이와 체험, 동영상 시청, 토의 등을 접목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 신청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친화팀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역사회의 아동권리 인식 향상과 아동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시청 전 공직자와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아동권리교육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아동들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출산과 양육, 교육하기 좋은 도시와 더불어 모든 아동이 행복할 권리를 공평히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나주 영천사 목조불상 등 3점, 전남도 문화재 지정

나주시는 나주 영천사 목조지장보살좌상(지장보살)과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여래좌상)이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346호와 문화재자료 제294호에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나주 적서정 정해일 초상’도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345호로 지정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영천사는 1954년 관불스님이 창건했다.

지장보살은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1535년 전후 발제된 소나무로 판명됐으며 조선 전기 불상과 양식적 특징이 유사하다. 이 시기 활동한 조각승 향연(香巖)의 작품으로 추정됐다.

균형 잡힌 신체 비례와 단아한 이목구비, 결가부좌에서 한쪽 다리를 풀어 대좌 밑으로 내린 자세, 장신구 등 16세기 중후반 불상의 특징이 담겨있다. 15~17세기 불교 조각 양식 흐름을 규명하는 중요 사료로 평가됐다.



전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나주 영천사 지장보살과 여래좌상, 적서정의 정해일 초상(왼쪽부터). (나주시 제공)

여래좌상은 상호, 착의나 주름 표현, 수인, 높고 넓은 무릎에 상반신이 짧은 신체 비례 등 17세기 중엽 제작된 불상의 양식적 특징이 잘 표현됐다. 복장유물도 다리니와 금강경, 개근발원문 등이 확인됐다.

‘정해일(鄭海淵·1858-1925) 초상’은 조선 말기 대표적인 초상화가인 채윤신(1850-1941)의 작품으로 청록색 관복과 마른 얼굴, 반백의 수염 등이 정교하게 표현됐다.

국립나주박물관에 위탁 보관됐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WeConnectScience

LG화학

플라스틱, 지구와 공존하다

LG화학은 유한한 자연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합니다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을 연구하는 LG화학 석유화학 사업